

2016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오페라 분야 시범공연지원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6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오페라 분야-시범공연 지원심의
- 회의일시 : (1차) 2016. 9. 29(목) / (2차) 2016. 10. 19(수)
- 회의장소 : (1차) 아르코예술극장 2층 회의실2 (2차)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한강'

○ 심의 진행과정

2016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오페라 분야 시범공연지원 사업은 실연심사 자동 진출작 2팀(기존 단계별 선정작)을 포함한 총 7단체가 접수되었다. 심의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실연심의로 진행되었다. 1차 심의는 작품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30%), 공연작품의 예술성(40%), 공연단체의 역량(30%)을 기준으로 각 단체가 제출한 서류(악보, 대본 등)을 통해 2차 실연심의 대상을 선정했다. 2차 실연심의를 작품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30%), 공연작품의 예술성(40%), 공연단체의 역량(30%)을 기준으로 각 단체의 공연 실연 및 질의응답을 통해 최종 지원 단체를 선정하였다.

○ 1차 서류심의

2016년 오페라 창작산실 시범공연지원 1차 심의에 지원한 작품들은 음악과 대본의 전체적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동시대 관객들의 호응을 얻기 어려운 진부한 소재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음악적인 면에서 극적인 내용이 충분히 담기지 않거나 그에 따른 오케스트라 구성이 미흡하였고 표현의 다양성도 충족시켜주지 못하였다.

또한, 이전에 지원했던 작품을 재지원한 경우 이전과 크게 다름없이 부분적인 수정만으로 제출한 경우가 많아 안일함이 엿보였다. 한편 심사과정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어 작품의 경우, 한글 번역대본 제출이 요구된다.

전반적으로 아쉬운 작품 수준에도 불구하고 오페라 창작의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 <붉은 자화상>을 선정하였다. <붉은 자화상>은 오페라 창작 아카데미에서 개발된 작품 중 하나로 대본의 탄탄한 구성과 소재의 참신성이 돋보인다. 음악적 측면에서 후반 부분 관현악 편성의 구성력이 빈약하고 극적 표현의 설득력이 부족한 점 등이 우려되지만 일부 서곡 부분은 비교적 밀도 있는 구성을 보여 장기적 관점에서 작곡가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끝으로 섬세한 내적 갈등이 주요한 작품인데 대극장 공연을 목표로 하는 것이 대본의 본래 성격에 적합한 선택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 2차 실연심의

2016년 오페라 창작산실 시범공연지원 2차 심의에서는 작품의 예술성과 더불어 창작초연작으로써의 제작 안정성에 초점을 두어 심사하였다.

<천상의 아리아>는 참여한 성악가들의 기량이 높아 상당히 효과적이고 완성도 높은 시연을 선보였다. 제작 단체인 '대전오페라단'은 대극장 규모의 제작 경험이 풍부하여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게 평가 되었다. 그러나 작품이 비교적 단순한 구성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소극장 규모의 무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극장 작품 심사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음악적으로도 정통 오페라의 다양하고 풍부한 극적 표현과는 거리감이 있어 장르적 특성에도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

<소서노>는 대본과 작곡가가 각각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다년간 단계별 성장의 길을 걷고 있는 작품답게 음악적으로나 극적 내용에 있어서나 다른 두 작품에 비해 월등했다. 그러나 지원 주체인 단체에 대한 오페라 제작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신중한 논의 끝에 선정 제외를 결정하였다.

오케스트라 편성의 규모나 다양한 내용의 장면 구성은 다른 지원작들에 비해 대극장 무대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오페라에서 매우 중요한 언어와 음악의 효과적 구성에 의한 전달력 또한 상당한 고민과 노력이-가수에 따라 다소 전달력의 차이는 있었으나-담겨 있었다. 다만 음악적인 면에서는 다채로운 표현의 부족이, 소재에 있어서는 이미 오페라 <주몽>을 비롯해 드라마와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에서 시도된 것으로 앞으로 관객의 호기심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남았다.

<소서노>의 제작 단체인 '깡따피아 아트컴퍼니'는 지난 해 창단하여 오페라를 제작해본 경험이 없는 단체로 인터뷰 과정에서도 제작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이 드러났다. (*본 사업의 지원 조건에서 사전에 단체에 대한 특별한 경력이나 활동 기간에 대한 자격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제한된 수의 기존 전문 제작 단체를 고려할 때, 신진 단체들의 지원을 독려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다. 즉, 이는 수량적 자격요건의 미달로 인해 자격을 얻지 못했지만 출중한 활동과 노력을 보인 신진 단체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제작 경험과 전문성을 중요하지 않게 평가한다는 의미는 아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페라는 소위 종합예술로서 대극장 규모라면 최소 100명 이상의 참여 인력과 각 예술 및 운영 파트에 대한 역할과 상호 작용에 대한 메커니즘, 현장의 다양한 변수와 위험요소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아무리 좋은 대본과 음악이라고 해도 성공적으로 무대화될 가능성이 적다. 이번 심사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소서노>는 차후 전문성을 갖춘 검증된 단체와 재도전하여 작품 자체의 예술성이 온전히 무대화되어 관객에게 전달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붉은 자화상>은 대본은 비교적 완성도가 있었으나 음악적 수준이 그에 미치지 못하여 작품의 예술성 자체에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나 제작단체의 역량 부분이 다른 지원작에 비해 상대적인 강점으로 작용하였다.

작품성에 있어서는 1차 선정 심사에서 나타난 긍정적, 부정적 관점들이 실연심사에서 대부분 현실로 드러났다. 소재의 참신성과 함께 내용의 긴장감과 감동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극의 전반부와 후반부 간의 극적 흐름에 설득력이 약하고 음악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완성도와 참신성이 부족했고, 특히 부분적으로는 효과적인 표현도 있으나 전체적인 어법의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총체적으로 작품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규모와 성격에 있어서 대극장 작품으로의 완성을 추구하고는 있지만 그에 맞는 충분한 극적, 음악적 요소를 갖추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인 '서울오페라앙상블'이 가진 다년간의 오페라 제작 경험은 아직 관객에게 선보인 적이 없는 창작초연작을 제작함에 있어서 안정성을 부여해주는 중요한 요건으로 평가하여 최종 선정하게 되었다.

2016년도 오페라 창작산실 시범공연지원 지원사업 선정 심의위원 일동